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머니와 아내



어머니는 손주들의 옷을 고를 때 소매가 넉넉한 것을 사려고 하고, 아내는 아이의 몸에 꼭 들어맞는 옷을 사려고 한다.

어머니는 고등어 대가리를 비닐 봉지에 함께 넣어 오지만, 아내는 생선 가게에다 버리고 온다.

어머니는 손주가 먹다 남긴 밥이며 국물을 아무렇지도 않게 먹지만, 아내는 아들이 먹다 남긴 밥과 국물을 미련없이 버린다.

어머니는 아무리 급해도 김치를 손수 버무려 담그지만, 아내는 시간이 없을 때 슈퍼마켓에서 사서 먹을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어머니는 생신날에도 그냥 집에서 한끼 때우자 하고, 아내는 생일날이면 분위기 좋은 데 가서 외식을 하자고 한다.

어머니는 사과를 꺾고 나면 씨방 부근에 남은 과육을 다 발라 드시지만, 아내는 껍질과 함께 그냥 버린다.

어머니는 "짚레꽃잎에 세 번 빗방울이 닿았으니 올해는 풍년이 들겠다"고 하고 아내는 "엘니뇨 현상 때문에 요즘 비가 많이 오는 건 아닌지 모르겠어요"한다.

세월이 갈수록 어머니는 부끄러움이 많아지고, 아내는 점점 대담해진다.

우유 한통을 들고 목욕탕에 갔을 때 어머니는 그 우유를 손주에게 먹이려고 하고 아내는 우유로 마사지를 하고 싶어한다.

일제 때 태어난 어머니는 '아까징끼'라 하고, 근대화의 세례를 받은 아내는 '머큐로크롬'이라 한다.

어머니는 썩부쟁이와 구절초를 구별할 줄 알지만, 아내는 가을날 피는 모든 꽃들을 들국화라 부른다.

어머니는 손주에게 친구들하고 싸우더라도 차라리 네가 한 대 더 맞는 게 낫다고 하고 아내는 바보같이 맞지만 말고 너도 때려야 한다고 아이에게 가르친다. 그러다 손주가 학교에서 같은 반 친구 한 명을 때렸다고 집으로 전화가 오면 어머니는 은근히 좋아하시고 아내는 아이를 잡도리해야겠다며 버른다

어머니는 가는 세월을 무서워하고 아내는 오는 세월을 기다린다.

아름다운 아내, 아름다운 어머니!



◀눈물나는 밤엔 우머의 초벌을▶ 훈련소 첫날

【교관】 "너희들은 이제 더 이상 사회인이 아니다. 이제부터 사회에서 쓰던 말투는 버리고 모든 질문에 대한 대답은 "다"와 "까"로 끝을 맺는다 (예: 그렇습니다. 저 말씀입니까?). 모두 알아 들었나~?"

【훈련병 A】 "알았다"

【교관】 "이런 정신나간 놈 봤나. 모두 알아들었나?"

【훈련병 A】 "알았다니까~"

교회목표 하나님만이 살과 교회의 주인	'2002년 교회생활: "가족으로 오신 예수님" <b>갈보리 교회</b> Calvary Presbyterian Church	교회생활지침 누가 10:37 *자원함 - 섬김과 봉사 *익명성 - 명예
제 4권 36호	기초성경공부이수, 정장으로 예배, 남 이야기 금지	2002년9월 8일
☎520-9464, 71 Khyber Pass Rd.(The Church of the Holy Sepulchre)		calvary.ca.to

휘파람



하계목회자동문회에 참석한 목사님들과 사모님들이 예배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사회자가 "오늘 K목사님과 사모님이 특별찬양을 드리겠습니다"라고 말하는 순간 긴장감과 걱정스런 분위기로 숙연해졌습니다. 왜냐하면 찬양하기로 소개된 목사님은 몇 해 전에 후두암으로 목소리를 크게 내지 못 할 뿐 아니라, 천 소리로 겨우 의사 소통을 할 수 밖에 없는 분이였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로인해 자신이 세운 교회에서 목회를 사임하고 쉬고 계신 분이었습니다.

예배 위원을 선정하는 총무 목사님이 K목사님을 미처 고려하지 못하고 실수로 찬양 순서를 선정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K목사님은 기다렸다는듯이 잘 나오지 않는 목소리로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목회를 못하게 되자 성도들에게 너무나 말씀을 전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너무나 찬양을 함께 부르고 싶었습니다. 어느날 어떤 모임에 참석하게 되었는데, 너무나 찬양을 하고 싶어서 기회구나 하고 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목사님, 목소리도 안 나오는데 회중앞에서 찬양은 좀 어렵겠습니다' 라며 거절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목소리로는 어렵겠지만 휘파람으로 찬양을 하겠습니다' 하자 그것도 거절 당하였습니다. 그러나 오늘 찬양을 하게 되어 매우 행복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저는 휘파람으로 할테니 목사님과 사모님들께서는 함께 찬양을 합창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K목사님은 나오지 않는 목소리대신 휘파람으로 불렀습니다. 3절이 끝나갈 무렵 총무 목사님의 긴급 제안으로 4절을 K목사님 혼자서 휘파람으로 찬양을 드렸습니다.

K목사님과 함께 찬양하던 목사님들과 사모님들의 눈에서 어느샌가 눈물이 흐르고 있었고, 감동을 참지 못하여 여기저기서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가 딸에게  
돈으로 사랑받거라  
예쁜 얼굴은  
3년만에 실종나지만  
돈을 아끼줄 아는 아내는  
평생 예뻐 보인다

아버지가 아들에게  
남의 비방에 의존하거라  
큰 강은 작은 돌에 흐름이  
흐트러지지 않는다  
비방에 귀가 솔깃한  
작은 웅덩이가 되지 말아라

# 주 일 예 배

(\* 표에 일어서시기 어려운 분은 앉으셔서 드리시기 바랍니다)

영광송 Gloria "Calvary" 다 같이

참회의 기도 Confession Pray

용서의 선언 Proclaim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인도자

\*찬송 Hymn 12장 다 같이

\*성서교독 Response Reading 26(시 104)

\*신앙고백 Apostle's Creed 사도신경

교회소식 Welcome & Announcements

어린이 시간 Sunday School

찬송 Hymn 276 장 다 같이

기도 Prayer 박일영 집사

성경봉독 Scripture Reading - 누가복음 13: 18-19 인도자

성가대 찬양 Choir 나무심자가성가대

설교 Sermon '천국은?' 김성국 목사

찬송 Hymn 318장 (마지막절은 일어서서) 다 같이

헌금기도 Offering Pray 인도자

응답송 Response Song '이 믿음 더욱 굳세라' (1절:양경배 집사 가족, 2절:다같이) 다 같이

축도 Benediction 김성국 목사

## ◆9월의 예배위원◆

일자	주일기도	헌금위원	안내위원	가족찬송	Tea Time
1	김영길	권용일	윤형권, 신영화	김경숙, 이재영	송영철, 윤형권
8	박일영	김경숙	박상옥, 이금선	김동숙, 양경배	이재영, 임성광
15	이재영	김영길	이재영, 김경숙	김미애, 조용건	전병주, 정관영
22	최재학	박병민	박병민, 이기중	김순자, 정덕수	정덕수, 최득수
29	김순자	신경화	권용일, 이지영	노은숙, 최재학	최재학, 권용일

- 【중국 선교사가 되길 원하는가? 중국어 지금부터 배우자.
- 아프리카 선교사가 되길 원하는가?
- 아프리카 말을 배우고 문화와 역사를 지금부터 배우자.
- 하나님의 사람이 되길 원하는가? 성경을 읽자】

'2002년 교회표어  
"가족으로 오신 예수님"(엡 5:21)  
<실천사항>표현하는 사랑만이 아름답습니다  
\*기도하는 부모 \*달살돋는 애정표현

\*3주간 예배, 친교참석 이후에  
등록 자격이 주어집니다  
\*어려교회를 다녀 보신후 결정  
하셔야 바른 판단이 됩니다

주일예배: 낮 12시 수요일예배: 저녁 7:30 아동, 학생부: 주일 낮 12시 청년부: 토 저녁 6시

◆고국의 강릉은 특별재해지역으로 선포될 정도로 태풍으로 인한 수해피해가 심각하다는 소식이 들려옵니다. 고국을 위해 기도합니다. 피해지역 주민들은 식량도 없지만 지금 받은 식량을 끓여먹을 식수가 없음이 제일 고통이라는 소식 또한 들려옵니다. 물난리 난 곳에 물이 없다는 역설! 예수님이 세우신 교회에 예수님이 없고, 믿음을 추구하는 마음에 믿음이 없다는 역설도 존재할 수 있다는 생각에 다시 한번 마음을 가다듬습니다.



1. 등록하심을 함께 환영합니다

김문권, 유성희 집사. 다솔, 다은.

☎449-1777 ✉ 38Meadowvale Ave. Forresthill

2. 오늘 식사친교주일: 제2 여선교회원들께서 봉사하십니다. 감사합니다

3. '믿음의 어머니'기도회: 화요일(10일). 저녁7:30. 본당

4. 주차안내: 제직들께서는 원활한 주차를 위해 교회앞 U-BIX 주차장을 사용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노란색 주차공간(1-4번)은 거주자용 공간임으로 주차를 피해주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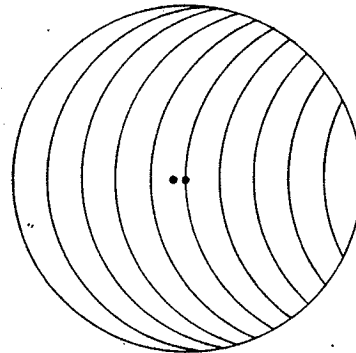
5. 어제 남선교회 주최 낚시대회는 하나님께서 날씨, 고기 그리고 즐거움의 조화를 주신 기쁜 날이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6. 금요새벽기도: 금요일 6:00am

\*평안하다고 할 때, 아무 일이 없을 때, 삶이 조용할 때 나를 흔들여 깨우며 기도해야 합니다.

7. 수요일예배(성경강해-출애굽기): 수요일 저녁 7:30. 교회

\*다른것을 할 수 있음에도 주님앞에 나옴은 결국 가치관을 하나님께 두고 있는 자입니다



그림의 원의 중심이 왼쪽에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자로 재어보면 사실 그것은 한쪽으로 치우쳐 있으며 오른쪽 점이 중심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진리 안에 있지 않은 한 우리의 삶이 아무리 그럴 듯해 보여도 실상은 중심을 잃어버린 삶이란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여호와와는 마음이 상한자에게 가까이 하시고 중심에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데다(시편 34:18)』